

# 상처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일러스트 | 신창우

주변의 젊은 연구자들과 더불어 독서치료 공부를 시작하여 관심의 비중을 높여가던 때였다. 우리는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것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감을 잡게 되었다. 우리는 그때까지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로 '어려운' 논문을 생산하며 '학문'을 하던 처지였다. 그런 가운데 모처럼 만나게 된 독서치료 공부를 통해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뜻밖에도 거기에는 많은 지난날의 마음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치유서를 읽고 메모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그것들이 소리도 없고 소문도 없이 슬그머니 완화되고 해소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다. 그것은 새롭고 신선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이를테면 간단한 약제를 적용한 결과, 성가시고

귀찮던 티눈 못 사마귀가 제거되는 효과를 보는 것과 같은 경우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개인적 체험에서 용기를 얻어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일정부분 개입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선을 보여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서가 주도하는 도서관 중심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던 초기 무렵에 나와 주변의 연구자들이 접하게 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다.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었다. 그것은 원래 가톨릭 수도자인 '헨리 나우웬'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오한 영성 훈련자이며 저술가이기도 했던 나우웬은 일찍이 이 개념을 사목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현대인이 처한 어려움을 규명하려는 시도 끝에 사목자 자신이 겪는 시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목자의 소명은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목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그가 혼란한 세상에 동참하려 하거나, 강박적인 동시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등 그 모든 경우 그의 사목이 진실한 것이 되는 길은 자신의 마음으로 직접 경험한 고통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사목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처입은 치유자'는 진정한 사목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나우웬의 놀라운 깨달음의 결과였으며, 지금 독서치료를 말하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남긴다.

나와 주변의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거다' '바로 이것이야' 라고 외쳤다. 단도직입하면, 우리는 모름지기 '상처입은 치유자'야말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자facilitator가 되는 자격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을 나우웬의 표현을 음미하는 가운데 마음 속 깊이 굳히게 되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 자신의 준비과정에 적용되었다. 우리는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약간의 개념을 익히고 이론 공부를 하는 한편 더 큰 비중으로 치유서 읽기에 몰두하였다. 치유서를 직접 읽고 스스로 치유 경험을 하는 것이 준비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양의 치유서를 소화하고 몸으로 변화를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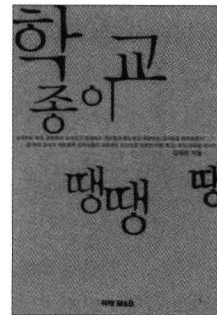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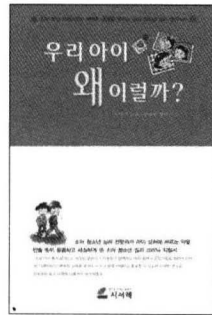
힘하였다. 우리가 선택한 이 방법은 그동안 내부적인 공감에 깊어지는 한 편 외부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연구자 S의 증언을 들어보자.

나는 '인격장애'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것도 병이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이라고 믿고 있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에 그 단어를 들었지만 인격장애라는 말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대학원의 독서치료 과목에서 직접 치유서를 읽으면서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나에게도 상처받은 마음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사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인격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은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전과는 달리 어떤 깨달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그 전에 비해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분명한 개념으로 나를 설명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을 대할 때에도 일종의 여유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 연구자는 그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치유 모임의 진행자가 되어 있다. 자신이 겪은 내면적인 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남들과 함께 책임기를 통한 상처의 치유와 내적 변화를 나누어 가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자는 자신의 글에서 좋은 치유서의 예로서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타이틀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원만한 정서생활을 가로막는 몸에 밴 어린 시절》W. 휴미실 다인. 가톨릭출판사,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김성목. 김영사,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제니스 A. 스프링. 문이당, 《학교 종이 땡땡땡》김혜련. 미래M&B, 《우리 아이 왜 이럴까?》이영식·진태원. 시서레. 이 글을 읽는 이들 가운데는 스스로 이런 책들을 읽어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나는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권한다. 읽는 과정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의 파장이 이는지 느껴보기를 권한다. 아마도 위의 연구자의 경우처럼 책의 치유하는 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상처입은 치유자' 개념을 중심으로 엮어본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비추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

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행자 자신의 치유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유 모임의 진행은 당연히 치유서 읽기를 통한 변화와 치유의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진행자가 입으로만 독서치료의 '원리가 어떻게' '과정은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유형이 어떻게' '전략이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라는 식으로 기술적인 설명만 길게 배치하는 것은 어쩐지 공허하게 들린다. 이 경우 우리는 진행자의 체험과 준비의 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모임의 운영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요**



《우리 아이 왜 이럴까?》이영식·진태원 지음 | 시서레 | 296쪽 | 값 10,000원  
《학교 종이 땡땡땡》김혜련 지음 | 미래 M&B | 250쪽 | 값 7,500원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김성목 지음 | 김영사 | 328쪽 | 값 9,900원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제니스 A. 스프링 지음 | 양문모 윙킴 | 문이당 | 348쪽 | 값 9,800원